■ 실속 재테크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면 보너스 '두둑'

의료비·카드 중복공제 허용 빠뜨리지 말라

장기주택마련저축 올해 가입분까지만 혜택

1년에 딱 한번 찾아오는 세금 환급의 기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것저것 챙길 것 때문에 연말정산을 골치아프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정확히 알고 꼼꼼히 챙긴다면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항목도 많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라진 제도=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항목부터 살펴보면 우선 기본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확대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 500만원 한도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올해부터 다시 허용됐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늘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됐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도 월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커졌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 대상 연령 조정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다. 인적공제대상자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어머니의 경우 연령제한이 만 55세에서 60세로 높아져 공제대상이 축소됐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이전에는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추가공제 혜택이 없다.

총 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를 할때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사라지게 됐다.

올해 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끝나는 항목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가입분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마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료비 소득공제도 연말로 혜택이 끝난다.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연말정산의 실제 준비와 환급은 내년 초에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2월분 급여에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징수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내년 1월 중순께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1월 중순께 오픈한다.

1월말이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회사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절차를 마치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 확대된 혜택	
기본공제 금액 및 대상자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의료비·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연 500만원→700만원 교육비(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300만원 교육비(대학생) 연 700만원→900만원
중복공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중복공제
■ 축소된 혜택	
인적공제대상연령	모친의 연령제한이 만55세→60세
경로우대추가공제	65~69세 연 100만원 추가공제 혜택 종료 70세이상 추가공제 연 150만원→100만원
특별공제폐지	총급여 2.500만원이하 혼인·장례·이사 100만원 공제 혜택 종료

주유소 95% 정량 미달 '얌체주유'

한국석유관리원 특별점검

20ℓ 기준 -56.2㎖ 모자라

전국 대부분 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넣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 12~30일 전국 주유소의 2%인 243곳을 골라 정량판매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95%에서 정량보다 모자라게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에 그쳐 대부분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모자라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이들 2곳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법정계량기를 사용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사용공차) 범위는 주유소의 경우 주유량의 ±0.75%이기 때문에 20ℓ를 주유한다면 최대 ±150㎖의 오차가 허용된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지역상품 팔기 나섰다

특산품·中企 우수 상품전 잇따라 개최

광주신세계가 지역 내 우수상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물품전과 지역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을 잇따라 개최한다.

지역상품 판매점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지역인재육성 기금 마련을 위한 '제8회 청자골 강진군 향토특산물전'을 연다. 강진 특산물전에는 강진진미, 잡곡, 방울토마토, 호박 등 농산물, 꼬막, 낙지 등 수산물, 한우 등 축산물. 가공식품, 강진청자 등 공예품까지 모두 40여 종이 판매된다. 신세계는 특산물전을 찾은 고객 가운데 선착순 1천 명을 선정해 쌀, 간장, 표고조미료, 잡곡 등을 증정한다. 지역 전통 명인이 가르치는 전통 된장 및 한지, 천연염색 등의 비법도 배울 수 있다. 신세계는 작년 강진특산물전으로 올린 6억6천여 만원의 매출 가운데 660여 만원을 강진 인재육성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난 7년동안 매년 특산물전 매출의 1%를 강진군에 기부해왔다.

19일부터는 전남도,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제3회 광주 전남 우수 중소기업상품 특별판매전'을 전개한다. 23일까지 5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이벤트 매장에서 열리는 특판전에는 지역 중소기업 18개 업체의 농축수산 가공품부터 건강보조식품, 염색제품, 허브제품 등이 선보인다.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은 전남도,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우수상품을 발굴 및 추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이사는 "백화점 담당 바이어가 직접 상품전략까지 컨설팅을 해주면서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이들 특별전이 지역 내 유통업체와 지역기업이나 생산농가 등과의 상생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光銀 'e-모아 인터넷 예금'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0억원 한도로 'e-모아 인터넷 공동예금'〈사진〉을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e-모아 인터넷 공동예금'은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모집 기간에 공동으로 예금에 가입하고 모집금액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온라인 전용 예금이다.

1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모집 금액 단위에 따라 최고 연 4.8%의 금리가 확정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공동예금은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예금에 가입하면 소액예금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LH, 광주 지산 휴먼시아 공공임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광주 지산 휴먼시아 5년 공공임대 370세대에 대한 임대 신청을 받는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74㎡(54세대)와 84㎡(316세대) 등으로, 임대 조건은 74㎡가 보증금 5천400만원에 월 임대료 31만2천830원이며, 84㎡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38만1천원이다. 입주는 2010년 6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건설현장에서 17~27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LH는 25~27일까지 3일동안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10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계약 체결은 12월 28~30일 이뤄진다. 문의 062-380-0597~9.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